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보수냐 민주냐

신 형 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소설가 황석영이 광주·전남 지역 문화운동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서울에 들른 것은 1980년 5월 16일 금요일이었다.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말을 서울에서 지내던 중 그는 광주로부터 올라온 비보를 듣는다. 문동환 목사의 교회 겸 공동체였던 '새벽의 집'에 도착해 있는, 광주 상황을 알리는 자료들은 '마치 조난자가 절해고도에서 구해 달라고 아득하게 먼 곳에서 파도 속에 띄워 보낸 병 속의 편지' 같았고, 그는 서울의 몇몇 동지들과 함께 그 '병 속의 편지'에 담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소위 'UP'(underground paper)조를 만들어 거리로 나서야만 했다.

최근 출간된 황석영의 자전 '수인'(문학동네)에는 아득해지는 대목들이 많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진실의 자유로운 유통이 봉쇄됐던 시절의 저 숱한 희생들이었다. 유신 정권 이래의 광기 어린 언론 통제 속에서 운동가 혹은 활동가들의 투쟁이란 결국 진실로부터 격리돼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거나 혹은 바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며 실감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촛불 혁명을, 이를테면 태블릿 피시의 진실을 보도한 언론과 그 진실을 신속히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생각해 보면, 나조차도 벅찬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지난 시대 진실의 운명을 생각할 때 또 한 번 착잡한 것은 당시 그토록 위태로운 진실의 생명을 짓이긴 이들 중에 문인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수인'의 한 대목을 펼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펜클럽은 뜻한 바 있어 펜클럽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당시 한국펜클럽은 문인협회나 예총 등과 마찬가지로 관변단체에 불과'했으므로, 미국펜클럽 회장이었던 미국의 작가 수전 손택 여사는 황석영 등을 위시한 민주 진영 문인들과 접촉하여, 김남주 시인 등 구속 문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뜻을 전한다.

그러나 뜻밖에도 결의문 채택은 부결됐는데 그때 분해서 눈물을 삼키던 수전 손택 여사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펜클럽 측의 환호였다. 당시 기사에 "동료 문인을 석방하자는 해외 문인들의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오히려 기뻐하는 한국 문인들의 정체성에 국제펜클럽 회원들은 혼란을 느꼈다"라는 내용이 실릴 정도였으니 말이다. 훗날 밝혀진 저 부결과 환호의 내막은 이렇다. 한국펜클럽 회장과 관련자들이 대회 전날 해외 문인들의 호텔 방을 방문해 거액이 담긴 봉투를 돌리며 반대와 기권을 유도했다는 것. 자, 이것이 군부독재 시절 자칭 '보수' 문인들의 활동이다.

대한민국에서 '보수'란 무엇이었던가. 최근 출간된 사회학자 김종엽의 저서 '분단체제와 87년체제'(창비)의 한 대목(2장, 각주 20)에서 저자는 '보수와 진보' 대신에 '보수와 민주'라는 명명법을 택하고 그 이유를 밝힌다. "구별의 두 항은 각각 상대가 아닌 것을 통해 의미를 획득한다." 즉, '보수와 진보'라는 구별에서 보수는 '진보가 아닌' 것이 되지만, '보수와 민주'라는 구도에서 보수는 '민주가 아닌' 것으로 제자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이렇게 구별하면 분단 체제 아래서 보수가 민주적 법치를 온전하게 수용하지 않는 집단임을 보여줄 수 있다."

'수구'라 불리는 '냉전형 보수'와는 구별되는 소위 '합리적 보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법하다. 그러나 "수구 세력이 이른바 합리적 보수에 대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보수파의 특징"이라는 것이 저자의 답변이다. 과연 그렇다. 자신들도 안 믿는 안보 선동으로 생존을 도모해 온 '냉전형 보수' 정당의 최근 지지율이 15%인데, '합리적 보수'를 선언한 정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5%니 말이다. 이것이 한국적 보수의 참담한 실상이다. 보수의 위기? 아니, 진실을 감옥에 가두고 돈 봉투로 틀어막아 온 '반민주' 세력의 위기일 뿐이다. 한국의 보수는 시작된 적도 없다.

종교칼럼

다른 삶은 가능하다

원 묵
선덕사 주지

불교 경전에는 사람을 99명이나 살해하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든 '앙굴리마라'라는 사람이 나온다.

아힘사는 헌신적이고 믿음이 깊은 젊은 수행자였다. 스승은 아힘사를 총애했고, 늙은 스승의 젊은 아내도 그를 좋아했다. 여인은 어느 날 스승이 외출한 틈을 타 아힘사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버렸다. 자존심이 상한 여인은 스승이 돌아오자 아힘사가 자신을 욕보였다면서 찢어진 옷을 입고 울었다. 분노에 사로잡힌 스승은 아힘사에게 100명의 사람을 죽여 손가락 목걸이를 완성하면 윤회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연쇄살인마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실라벌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을 가진 앙굴리마라라고 불렀다. 연쇄살인마가 되어 99명을 죽인 앙굴리마라에게 석가모니가 다가갔다. 칼을 쥔 앙굴리마라가 다가오자 석가모니는 몸을 피했다.

앙굴리마라는 '거기 서시오' 하고 외쳤다. '나는 이미 평화로움 속에 멈추었소. 멈추지 못하고 헐떡이는건 바로 당신이요.' 앙굴리마라는 그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다. '앙굴리마라여, 우리 공동체로 갑시다.' 석가모니는 앙굴리마라를 출가시켰다.

파사익 왕은 연쇄살인마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군대를 이끌고 거리로 달려왔다가 석가모니가 데려갔다는 말에 기원정사로 달려갔다. 석가모니의 안전을 확인한 왕은 앙굴리마라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석가모니는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스님을 가리키며 '왕이시여, 이제는 앙굴리마라는 없습니다. 이 스님은 과거에 앙굴리마라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우리 공동체의 비구승이 되었습니다'하고 말했다. 파사익 왕은 '국법으로는 사형을 시켜야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참으로 길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능히 길들이는 분입니다'하고 찬탄했다.

만약 석가모니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쁜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나, 파세나디 왕이 '한 번 살인자는 영원한 살인자'라고 생각했다면 앙굴리마라는 그 날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아라한을 성취한 성자 앙굴리마라는 없었을 것이다.

마가다국 왕자 아자타삿투는 데와닷타와 협력하면서 석가모니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뒤 아버지 빔비사라왕을 죽게 만들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 아자타삿투는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고, 석가모니는 기꺼이 참회를 받아주었다.

아자타삿투는 석가모니의 사후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가르침을 모아서 전승하는 1차 결집을 후원함으로써 불교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하였다. 만약 석가모니가 과거의 행실을 문제 삼아 아자타삿투의 참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칼럼도 없었을 것이다.

어제 없는 오늘은 없고, 오늘 없는 내일도 없지만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은 아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은 가능하다. 열반경에서는 백정이 도끼를 손에서 놓고 곧바로 성불한다는 가르침까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달리 보고 있지 않은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주 반듯했던 모범생은 커서 독일의 히틀러가 되었고, 사고뭉치 말썽쟁이였던 아이는 영국의 지도자 처칠로 성장했다고 한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순조롭지 않다. 숱한 과거사를 꺼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부당하다.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과거를 보는 것 뿐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무엇을 했는지도 봐야 하지만 무엇을 하려는지 보아야 한다. 과거에 누구와 함께 했는지 보아야 하지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보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일이다. 과거의 가족사보다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식견과 자질,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과거는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구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 고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주역 '히든 챔피언 기업'

김 진 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과거 60년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2050클럽 7개국에 마지막으로 진입하여 3050클럽으로 진입을 바로 앞둔 우리는 선진 경제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에 있어서는 청년실업이 10%를 상회하는 등 청년실업 상승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중소기업은 유능한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청년실업은 줄어들고 있지 않으니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고들 한다.

우리나라에 꿈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얼마나 있을까? 대답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질 좋은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강소기업과 월드클래스기업을 발굴하여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있다.

20년전 필자가 산업부 재직 시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법령을 만들 때 목표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벤처기업이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 거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올해 초 광주·전남지역에 부임해서 보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히든 챔피언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월드클래스 기업은 4개사이며 글로벌강소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였다. 또한 우리 지역 젊은 인재들이 터전을 떠나 좋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월드클래스 공모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기술컨설팅을 한 적이 있다. 그 중 FTTH 광케이블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GOC㈜는 생산품의 대부분을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하여 4년만에 200%의 매출과 25%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를 나타내어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되었다.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증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산업과 기업이 영세한 이 지역에서 유능한 청년들의 좋은 일터인 히든 챔피언 기업 발굴과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는 좋은 사례이다.

최근에 광주·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히든 챔피언클럽'을 구성하였다. 월드클래스 기업 등 32개 기업으로 구성되었는데 국내 최초로 소형 광분배기를 개발한 ㈜우리로, 광통신용 비구면 렌즈 분야 세계 2위인 아이오솔루션(주), 신기술이 적용된 파형강관으로 미국과 러시아 시장을 최초로 개척한 (주)픽슨 등이 포함되었다.

이런 기업들을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 등이 힘을 합쳐 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펴나가야 한다. 이들이 바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 리더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들어선지 1달이 지났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달라는 국민의 여망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좋은 일터, 히든 챔피언기업을 많이 육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청 힘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우리 지역 모든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히든 챔피언 육성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社 說

'국가도시공원' 지정해 도심 녹지 살리자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개발 시장에 매물로 나온 '서구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보존하자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구 중앙공원(293만9337㎡)의 경우 일부 선결 과제는 있으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엊그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다만 선결 과제는 국가도시공원지정 요건 완화와 지방 재정 확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앙·중외(243만9131㎡)·일곡(106만6166㎡) 등 광주 3대 공원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목된다.

광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중앙공원은 최근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10개 공원 가운데 한 곳으로 오는 9월께 민간 개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량(광산구), 마륵공원(서구), 송암공원(남구), 봉산공원(광산구) 등 4곳은 현재 공모가 진행중이다. 이들 공원은 애초 광주시에서 공원구역으로 묶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공원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분류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재정 사정 때문에 공원부지를 전부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도심 녹지대를 민간에 맡겨 개발하면 고층 아파트 등 난개발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광주시는 공공성이 약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광주의 3대 공원을 지켜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광주시와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 시·도지사 등과 연대해 정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시민·환경단체들도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

아동 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친부모라니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00건을 넘은 뒤 2년만에 두배 가량 급증한 것인데 하루 6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220건으로 전년 1436건보다 54.6%나 증가했다. 특히 아동 학대 신고는 2012년 795건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 5년 사이에 무려 179%가 급증했다. 여기에 학교·유치원·보육원 내에서의 학대 신고도 늘고 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1574건으로 70.9%에 달한다. 두 가지 이상 중복되는 사례도 651건이나 됐고, 심지어 지난해 전남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라는 데 있다. 광주는 총 345건 가운데 310건, 전남은 1229건 가운데 850건이 부모에 의해 자행됐다.

물론 이 같은 신고 급증은 과거 일상적인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 학대가 이제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면서 크게 늘어난 면도 없지 않다. 특히 아동 학대를 전담하는 일선기관에 주변의 신고로 아동보호 사건 접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내 범행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동 학대는 단순히 예전의 '훈육'이 시대가 바뀌면서 '범죄'가 됐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치부돼서는 안된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으로 심지어 성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 학대 범죄 대부분이 보호자가 가해자인 '가정 내 범죄'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를 한 부모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고향 지킴이

온 국민이 헐벗고 굶주리던 1960년대. 가난에 지친 부모들은 땅 팔고 소 팔아 자식을 서울로 유학 보냈다. 줄줄이 낳아 놓은 자식을 모두 유학 보낼 순 없으니 '똑똑한' 자식 한 명을 선택해 서울로 올려 보낸다. 부모의 피눈물 나는 심경을 알아서인지, 유학 간 자식은 부모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출세 가도를 질주한다. 일부는 고시에 합격해 판검사나 시장·군수 영감이 되고, 또 다른 일부는 정부 고위 관리가 되어 '스펙 좋은' 엘리트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여기까지가 서울로 유학 보낸 자식들의 성공 스토리다.

하지만 고향에 남은 부모 그리고 '한 끝 차이'로 유학 가지 못한 자식들의 삶은 서울 형제들의 그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부모는 여전히 고향에서 남의 논을 부치며 땡볕 아래 땀을 흘리고, 그런 부모를 모신 형제들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땅을 함께 지키며 애면글면 살아간다.

서울에서 성공한 자식, 고향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형제들 중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효자인지를 가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부모가 각각의 자식에게 바라는 바가 다르고, 자식들도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지역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를 뽑을 때마다 지역민들은 서울에서 능력을 발휘해 '훌륭한' 경력을 쌓은 자식을 선택할지, 함께 살며 고향을 지켜 온 자식을 선택할지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지금까진 서울서 내려온 '화려한 스펙'의 자식들이 선택받아 왔다. 서울에 돈과 권력이 집중된 현실에서, '잘 사는'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와 권력기관을 상대로 고향의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주·전남이 명실상부한 정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차별 없는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서울 귀향파'에 맞서는 '고향 지킴이파'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역 단체장을 뽑는 2018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선거에서 고향 지킴이들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행기 사회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